

경제

풀죽은 '온누리상품권'

설 연휴 光銀 영업점서 3,500만원어치 판매 그쳐

발행 지역 판매기간 짧아… 기대치 크게 밀돌아

설을 맞아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판매됐던 광주지역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12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총액은 3천500만원이었다.

권종별 판매액은 5천원권이 357매(173만8천500원), 1만원권은 3천321매(3천321만원)이었다.

당초 광주은행은 연중 상품권 판매 물량 20억원 어치를 확보해 판매에 나섰으며, 상품권을 발행했던 광주시

는 이번 설에 판매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았었다.

지역 새마을 금고의 판매실적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상품권 판매액이 저조한 것은 상품권 발행이 지역에 판매 기간이 짧아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로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일 30만원, 월 300만원 한도까지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구매 금액의 3%를 할인받는다. 법인은 할인 혜택이 없지만, 구입 한도액 제한이 없고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설에 3,261억 풀려

지난해보다 20% 증가… 오만원권 37.6% 차지

올해 광주·전남지역 설 자금 발행액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설 전 영업일 10일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공급된 설 자금(순 발행액 기준)은 3천261억원으로 전년 동기(2천713억원)보다 20.2%(548억원)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초 크게 부진했던 경기가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선데다

지난해 6월23일 발행된 오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설에 맞춰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총 발행액에 대한 권종별 구성비는 오만원권이 37.6%, 만원권이 57.5%로 과거 총 발행액의 대부분(93.4%)

을 차지했던 만원권의 비중이 줄고 이를 오만원권이 대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 자금'은 설 전 영업일 10일 동안 한국은행 화폐 순발행액(총발행액-총환수액)을 의미하며, 설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 및 개인의 현금수요 이외에 정기금과 등 경상적인 현금수요도 포함된다.

한편, 전국의 설 자금 발행액은 3조 7천5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설 자금공급액은 지난 2007년 3천 299억원, 2008년 3천849억원이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햄쌀 막걸리 전국 시장 진출

강진 병영주조장 7억 규모 계약… 5개 업체도 가맹점 판매 검토

전남산 친환경 햄쌀 막걸리가 전국 규모의 유통망을 갖추면서 전국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병영주조장은 최근 외식업체인 주인도 외식산업과 햄쌀 막걸리 구매계약을 맺고 매월 6만병 이상 연간 7억 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인도외식산업은 전국 맥주 전문점 262개 매장을 비롯, 화로구이 전문점, 한식 전문점 이탈리안 카

페 등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외식업체다.

전남도는 현재 도내 햄쌀 막걸리 제조 사업장인 순천 주조공사와 장흥 인양주조장, 강진 병영주조장, 영암 삼호주조장, 함평 농업회사법인인 자하자연 등 5곳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등과 연계, 전통주, 강진 청자의 술병·술잔 등을 활용한 가맹점 사업과 해외 음식시장 진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가 '캐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현재 도내 햄쌀 막걸리 제조 사업장인 순천 주조공사와 장흥 인양주조장, 강진 병영주조장, 영암 삼호주조장, 함평 농업회사법인인 자하자연 등 5곳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등과 연계, 전통주, 강진 청자의 술병·술잔 등을 활용한 가맹점 사업과 해외 음식시장 진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가 '캐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서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

세계 최대정보통신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삼성 모비일 언팩(Samsung Mobile Unpacked)' 행사장에서 삼성전자 도우미들이 삼성 독자 플랫폼 바다를 탐색한 전략 스마트폰 '웨이브(원쪽 첫번째·세번째)' 등 다양한 첨단 휴대폰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고조

동의서 거부 노조 19일 상경투쟁… 구조조정 '안갯속'

금호사업·석화 자금 '수혈'

금호타이어에 대한 구조조정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호 운영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공장이 물을 위기에 처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채 본사와 채권단을 겨냥한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해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반면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한 금호 사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긴급 자금이 지원되는 등 구조조정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호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과 3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한도를 새로 개설해주기로 했지만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없는 신규 자금 집행도 없다"고 못 박았다.

다면 채권단은 협력업체의 연세 부도를 막기 위해 자체 자금 60억원 정도의 대금 결제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가 '캐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서

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제 노력으로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는 지적이다. 채권단의 긴급 신규 자금 투입이 절실히하다는 것이다.

신규자금 집행이 미뤄지면서 금호타이어는 원료 구입을 하지 못해 다음 달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사태도 우려되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인원 감축 철회라는 구조조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개악'으로 규정, 오는 19일 서울 본사에서 체불임금 조속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대조적으로 채권

단은 금호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을 서둘러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금호사업에 대해 지난 10일 신규 자금 2천800억원을 지원해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또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호석유화학에도 조만간 신규 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그룹의 주체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호석유화학에 6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3천500만 달러의 기한부 어음 신용장을 개설하는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작년 토지 거래 순천·여수 급증

지난해 전남지역 토지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땅값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내 땅값과 토지거래량은 분석한 결과 땅값은 전년과 비교하면 0.35% 상승했고 토지거래량(필지 기준)은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여수 1.077%, 신안 0.778%, 광양 0.603%, 무안 0.403%, 순천은 0.366% 상승했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신안은 연륙교 개설, 광양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지난해 연간 토지거래량은 14만3천552필지, 2억8천238만2천㎡로 전년 대비 필지수 기준 3.4% 감소했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5.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1년전 19필지로 가장 많았고 여수가 1만5천 626필지로 그 뒤를 이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요타 리콜 여파

日 중고차값 급락

도요타와 혼다의 대량 리콜 여파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5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대량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주일 새 렉서스와

도요타, 혼다 등 일본차들의 중고차 시세가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격차를 벌였다.

국내 최대 중고차 쇼핑몰인 SK에 카에서 렉서스 ES350 450만원 가격은 2009년 식이 지난주 5천200만원에서 이날 현재 5천만원, 2008년식은 4천6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200만원씩 하락했으며, 2007년식은 4천2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400만원이나 떨어졌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593.66 (+26.54)

코스닥지수

503.88 (+6.51)

금리 (국고채 3년)

4.12% (-0.10)

원·달러 환율

1,151.30원 (-18.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점, 대인동 소방서전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빠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휴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9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 (107평)	400~500만원	병원, 학원 사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화원, 특수 사무실 등
10층 495㎡ (150평)	350만원	

맞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분수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멤버리스타워빌딩

※각층 약 230평(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앞 10×10×6m 코너 상